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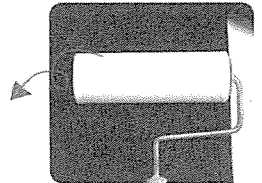
늘~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다!

겨울옷 제대로 손질하는 법

「지난 겨울 입고 그대로 넣어둔 코트, 스웨터... 제철을 맞아 다시 꺼내보면 제대로 손질해 넣어두지 못해 '아차' 싶을 때가 있다. 특히, 겨울옷은 여름옷처럼 자주 세탁하지 못하므로 그 때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. 늘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손질요령을 알아본다.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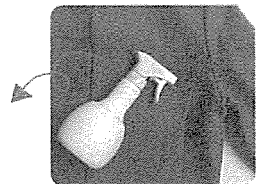
★ 먼지가 묻은 코트

검정색 등 어두운 색의 겨울코트는 먼지가 조금만 묻어있어도 티가 나기 쉽다. 끈끈이 롤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거나 스펀지에 물을 묻혀 문질러 주면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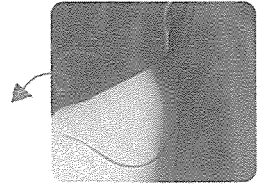
★ 냄새나는 모직 코트

음식점 등에서 옷을 걸어두면 여러 가지 쿼퀴한 음식냄새가 그대로 옷에 배기 쉽다. 우선 막대기를 이용해 먼지를 털고, 섬유탈취제를 뿌려 반나절 정도 바깥에 걸어두면 좋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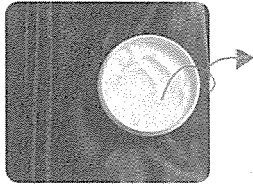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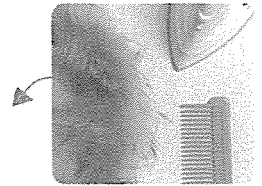
★ 밀려난 코트 안감

코트의 안감이 소매 밖이나 밑단 밖으로 밀려나와 있는 경우는 바느질 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. 바느질이 끊겨 있는 부분을 군데군데 흠질하거나 박아주고 다림질로 눌러준다.



★ 앙겨버린 털

모자나 목도리 등의 털이 있는 경우 머리카락처럼 엉키기 쉽다. 스티мп다리미로 스티мп을 쏘면서 결 반대 방향으로, 다시 털이 난 방향으로 빗질을 해주다 보면 엉킴을 풀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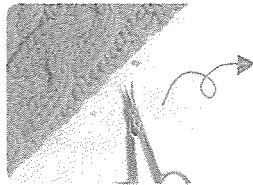
★ 뻣뻣해진 가죽 재킷

가죽 재킷은 너무 자주 세탁하면 오히려 가죽을 상하게 할 수 있다.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주름이 생기거나 뻣뻣해진다. 1년에 한 번쯤은 영양크림이나 우유를 묻힌 거즈로 옷 전체를 살살 문질러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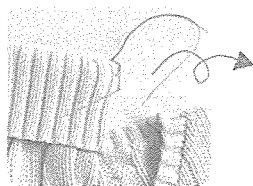
★ 털 뭉친 오리털 재킷

오리털끼리 뭉치면 옷의 형태도 망가지게 된다. 세탁 후 털이 한쪽으로 뭉쳤다고 생각될 경우는 그늘에 펴서 말린 후, 막대기로 살살 두드리면서 뭉쳐 있는 털들을 분산시키고 살아나게 한다.



★ 보풀이 일어난 니트

보풀을 손으로 뜯어내게 되면 다시 생겨나기 쉽다. 미용가위나 보풀제거기를 이용해 보풀을 없애야 한다. 세탁할 때는 세탁망에 넣거나 뒤집어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.



★ 늘어난 소맷단 & 목둘레

니트의 경우 소맷단이나 목둘레가 늘어나기 일쑤다. 고무줄이 들어간 실로 흠질을 해주면 탄력이 생겨 흘러내리지 않는다. 살짝 늘어났을 때는 보통 실로 흠질하고 스티мп을 쏘인다. C

- 출처 : 우먼센스(사진 : 민재희 / 진행 : 이승아 기자)